

## 수산물 안전 등 전남지역 주요 수산분야 현안 논의

- 송상근 해수부 차관, 전남권역 생산자단체와 국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생산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뜻 모아

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17(수)에 전남 완도군청에서 개최된 전남권역 수산정책 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.

이번 간담회는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주최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, 전남도연합회장, 완도전북생산자협의회장을 비롯하여 전남권역 생산자 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하였다.

송 차관은 전남지역 수산업계가 당면한 현안과 건의사항을 듣고 참석자들과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.

한편,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지난 4월 경남권역, 제주권역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이번 전남권역 간담회와 함께 5월 중 경북권역 간담회를 개최하여 권역별 간담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.

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“정부와 생산자 모두 국민들이 국내 수산물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생산 환경 조성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수산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자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관리과	책임자	과 장	최장원 (044-200-5940)
		담당자	사무관	김수정 (044-200-5803)